경기·인천 판세 예측불허…민주, '서해벨트 사수' 총력전

국민의힘, 수도권 승리 최우선…영남권 5곳 우위
경기·인천·충남·대전·강원 등 5곳 치열한 접전

6·1 지방선거를 열흘 앞두고 여야가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영·호남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두 나서 고정표를 다졌고, 수도권·중원 등 박빙 지역은 중앙당 차원에서 당력을 집중했다.

22일 현재 각종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경기·인천·충남·대전·강원 등 5곳에서 양당 후보들 간 치열한 접전이 전개되고 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나, 경기·인천은 양당 후보가 오차범위 미만으로 엎치락뒤치락 반복하고 있어서 판세는 예측불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교적 안정적 우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읽힌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9곳 당선을 선거 승리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방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영남권 5곳에서 확고 부동한 우위를 점한 가운데 서울, 충북에서도 우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인천·충남·대전·강원 등 4곳을 '백중우세'로 더하며 최종적으로는 9~10곳 안팎까지도 내심 당선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 4곳 중 3곳은 민주당 소속 현직과 맞붙는 선거로, 승리 시 '지방권력 탈환'에 의미를 부여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기초지자체 및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 영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불안감이 적지 않다. 기초단위 선거로 내려갈수록 투표율은 낮아지면서 조직표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

직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던 국민의힘에 결코 유리한 구도가 아닌 셈이다.

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수도권 승리가 최우선 과제지만, 내부에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반타작'만 해도 다행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총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절반인 8곳에서의 당선을 승리 기준선으로 삼고, 이른바 '서해벨트 사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선대위는 '텃밭'인 호남(광주·전북·전남)과 세종, 제주까지 총 5곳은 안정권, 다수 여론조사에서 접전 중인 경기·인천·충남·강원 등 4곳을 경합지로 분류하고 있다. 대전은 '백중열세', 영남과 서울·충북 등 7곳은 '열세'로 보고 있다.

이러한 판세 분석 하에 민주당은 당선 지역이 5개일 경우 '현상 유지', 6~7곳은 '선전', 8곳은 '완승'으로 자체 평가하는 분위기다.

소매 걷는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주 성안길에서 같은당 노영민 충북도지사 후보(오른쪽), 송재봉 청주시장 후보 등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며 소매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석권했던 이들 8곳을 모두 사수하기 위해서는 경합지인 경기·인천·충남·강원 가운데 적어도 3곳의 승리가 필수적이다. 당 지도부가 공식선거전 개시일이었던 지난 19일 선대위 출정식을 인천에서 열었던 것도 이곳을 수도권 승리의 교두보로 삼아 그 기세를 중원으로 확산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선대위는 전날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오는 23일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제 등 일련의 정치적 이벤트가 지나면 전체 판세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오늘 노무현 13주기 추도식 당정 총출동

한총리·윤 참모들 대거 봉하로
대통령실 올부터 공식 참석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정 주요 인사들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열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동행해 통합의 의미를 부각할 계획이다.

22일 한 총리는 "23일 추도식에 갈 것"이라며 "애초부터 개인적으로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대통령실도 올해부터는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보여 함께 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으며 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맡았다.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는 지난 18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어 또 한번 '당정 총출동'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권성동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원내지도부 다수가 함께 봉하를 향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한 총리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도식을 찾는다.

윤 대통령은 일정상 참석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과 김대기 비서실장 등 참모들이 봉하마을에 가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는 정무수석이 가기로 했고, 비서실장도 함께 갈 것인지 의논했다"며 "이어 한 총리가 인준됐고 이전 인연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함께 가서 마음을 표현하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참석자 수가 늘어난 데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는지 묻자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 분이 가시기로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한 총리의 국회 인준안이 통과하면 윤 대통령의 참모들이 한 총리와 함께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6·1 지방선거 유권자 4430만3449명

6·1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는 전국 4430만3449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139만5734명, 지난 3월 20대 대통령선거 때보다는 10만5757명 늘어난 수치다. 2020년부터 유권자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데다 평균수명 증가로 60대와 70대 이상 유권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국인이 4409만9634명, 재외국민이 7만6192명, 외국인 선거권자(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가 12만7623명이다.

여성 유권자가 2235만1098명(50.5%)으로 남성 유권자(2195만2351명·49.5%)보다 39만8747명 많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천149만7206명(26.0%)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37만8천339명(18.9%), 부산 291만6832명(6.6%) 등의 순이었다. 가장 적은 시·도는 세종으로 29만2천259명(0.7%)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광주 선거인수는 총 120만6886명으로 확정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김영록, 광주전남 초광역협력사업 속도

나주에서 빛가람혁신도시 상생협약
강, 이병노 담양군수 후보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와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가 광주·전남 상생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강기정 후보 측에 따르면 두 후보는 지난 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상생발전 공동 협약을 한데 이어 21일에는 나주와 담양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협약식을 갖는 등 광주·전남 상생과 초광역협력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 후보와 김 후보는 21일 나주 남평농협에서 윤병태 나주시장 후보와 함께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 상생발전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들은 ▲미래첨단산업 ▲광역교통망 ▲정주 환경과 교육 등 생활·경제권 통합을 위한 공동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기정 후보는 이어 이병노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와 상생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양 후보는 이날 ▲광역교통체계 개선 ▲생활·문화 교육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문화자원 연계를 통한 서남권 익사이팅 관광벨트 조성 ▲관광마이스 활성화 공동프로그램 운영 ▲스마트 드론 물류산업 지원 등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강기정 후보는 "최근 김영록 후보와 함께 상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공동노력 등을 선언한데 이어 광주시 인근 기초단체와 협력 기틀을 마련해 뜻깊다"면서 "이번 협약은 특정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광주·전남이 공동 발전하기 위한 초석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민은 결혼식, 돌잔치, 회갑 등 인생에 가장 기쁜 날 광주에 와서 시간을 보낸다. 광주가 이만큼 성장하는 데는 전남의 역할이 컸다"면서 "이제 광주는 전남의 손을 맞잡고 함께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자체 간의 개별 경쟁으로는 지역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없다"면서 "행정단위를 뛰어넘는 초광역협력으로 경제·생활통합을 추진해 광주·전남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장성 토지(매매 분양)	상무지구(상가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앞)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총분양 140평)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
	동구 지산동(농지)▶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
	북구 생용동(근린주택)▶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 7천 (5/12)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
	서구 화정동(주택)▶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
	북구 용봉동(주택)▶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
	동구 운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5/11)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5/18)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최저가 31억 (5/23)
	목포시 상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
시외	충남 서천군(근린주택)▶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5/23)

010-6670-9800